

# 건설분야 R&D 성과확산을 위한 공공조달 연계형 선순환 체계 운영 현황

- 신성장조달제도(舊 혁신조달) 기반 부처별 운영 현황 중심으로 -

박희택

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본부 신성장조달연구센터 성과확산팀장

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전체 공공조달 시장은 196조원에 달하며,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%로 절반에 가까운 큰 규모 수준이다. 계약건수 대비 계약금액으로 볼 때, 규모는 약 1.3억원/건으로 물품·용역 대비하여 각각 약 6배, 2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. 이는 건설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핵심 산업이며,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. 이에 최근 다부처에서 시행하는 R&D 사업이 공공조달 영역 하에서 다양한 주제로 추진되고 있다. 한편, 건설분야의 R&D 사업은 타 산업과 달리 R&D-실증-법·제도개선-실용화(활용·확산)가 사업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, 그 결과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,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. 따라서 건설산업을 통한 R&D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공공조달 영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R&D 지원을 통해 기술과 시장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에 R&D 사업 이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기부, 산업부 등 부처 별 공공조달 연계형 R&D 사업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.